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

강 철 희

(이화여자대학교)

김 미 옥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유용성을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학술논문 538편을 연구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양적 연구방법에의 과도한 편향이 매우 극심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러한 한계가 지적되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엄밀성 측면에서 볼 때 방법의 적절성과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의 동향 분석과 함께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유형을 정리하면서 한국 사회복지학과 질적 연구방법의 적합성(fitness) 즉 ‘질적 연구방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유용성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양적 연구방법에 편향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현상의 본질과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이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한다.

주제어: 사회복지학 연구, 질적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

1. 서 론

사회복지학은 이론성과 실천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응용학문이다. 사회복지학은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인과적 원리를 설명하는 'why' 차원에서의 접근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룰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즉 실용적 처방성을 모색하는 'how'차원에서의 접근 이 둘 모두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야 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학 전공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외형적으로는 명실공히 하나의 응용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실용적 사회과학 학문으로서의 정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갖고 있다. 특히 학문으로서의 정착과 관련해서 관련 지식의 확대와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과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사회복지학에서의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몇 편의 논문에서 연구방법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연구방법의 선택적 편향성, 재검증과 반증의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즉 과학적 탐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 연구자들은 연구주제나 이론적 모델에 기반하여 연구방법을 택하기보다는 익숙함 또는 시대적 유행에 편승하여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위험성을 보이는 경향성도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홍경준, 1998). 또한 경험연구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은 양적 방법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 새로운 인식론에 대한 수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매우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연옥, 1998).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편향성에 대해 최근 사회복지학계는 반성적 고찰을 통한 자성적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¹⁾ 이러한 평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이 양적연구에 지나치게 집중함에 따른 제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 활용의 필요성, 특히 사회복지학의 실천 부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연구 방법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확대 필요성 등이 제시되어지고 있다(김연옥, 1998; 오정수, 2002; 홍경준, 1998, 2002; Padgett, 1999).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러한 제시 및 최근의 관심 증폭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방법과 사회복지학의 적합성(fit)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회복지학 발전을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의 동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도와 함께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과 질적 연구방법이 향후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분포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에 게재

1) 1995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균(1995)의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하여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에 대한 기존경향과 관심을 확인하였다. 이후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홍경준(1998)이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02년 11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03년 2월에는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열어, 사회복지학계의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확인한 바 있다.

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논문들의 내용적 특성들을 분석하면서 질적 연구방법론 활용의 정도와 적절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적절한 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큼을 담론적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식적인 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적절한 활용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학 지식 생산 및 지식수준 제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이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식 체계 확립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의 적절한 활용에 따른 지식의 확대와 심화에 제한적이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위의 연구목적 기술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내용을 갖는다. 첫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 활용의 추이를 경험적 방법과 비경험적 방법 그리고 경험적 방법 내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구분한 후 그 경향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기본적 특징을 비교 정리하고,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과 유형을 정리해 본다. 셋째는 사회복지학 발전을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질적 연구방법이 갖는 의미를 논의해 본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의 추이 분석을 위해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의 학술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즉 이 학술지의 1979년 창간호부터 2002년 겨울호 즉 제51호까지의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각 논문의 연구방법론 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학』의 학술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홍경준(1998)과 김연옥(1998)의 방식에 기초해서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의 추이를 비교하고 경험적 연구의 범위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한 후 이러한 방식의 연구 경향성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모든 질적 연구 논문들의 내용을 기본 접근 방법, 표본추출 방법, 관찰 및 자료 분석 방법,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방법 등의 기준에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활용 현황을 정리해 본다. 둘째,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기본적 특징을 비교 정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철학 및 가치적 기반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의 핵심적 차이와 유사함을 정리해 본다. 아울러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핵심적인 접근 방법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현상학, 문화기술지, 근거이론 등의 방법들을 비교하면서 이들 방법에서 관찰되어지는 질적 연구방법의 핵심적 특징을 파악하고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참고 문헌의 고찰과 함께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창의적으로 담론을

전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왜 질적 연구가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질적 연구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구성해 본다.

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활용 추이 분석

1) 경험적 연구방법과 비경험적 연구방법의 비교

『한국사회복지학』이 창간된 1979년(1호)부터 2002년 12월말까지(51호) 출판된 논문의 연구방법론 동향을 분석하면, <표 1>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김연옥(1998)의 논문에서 학제성 및 협업성, 주제 선정의 성격, 산출지식의 성격, 연구방법, 통계기법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방법의 활용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험적 연구 내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 분석에서 경험적 연구방법이란 사회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여 타당한 지식체계를 얻는데 있어 경험적 자료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홍경준, 2002), 연구 방법에서 기술하였듯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써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두 접근방법을 연구주제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히 배합한 경우 이를 혼합적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복지학』이 창간된 1979년부터 1980년대에는 비경험적 연구방법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비경험적 연구방법의 비율이 80%가 넘는 수준이었다가 1983년부터 이 비율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경험적 연구방법은 괄목할만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1996년을 기점으로 경험적 연구방법은 비경험적 연구방법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의 비중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의 이러한 변화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경험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양적 연구방법의 증가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홍경준(1998)은 변화의 원인을 첫째, 미국 사회사업계의 일반적 추세와 이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신진 연구자들의 확대, 둘째 사회복지의 꾸준한 확대 과정에서 책임성의 이슈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어 양적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정당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산된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설명을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본다. 여하튼 사회복지학 연구에서 이러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확산 경향은 2000년대에 오면서 더욱 강화되어져서 2000년 이후에는 경험적 연구방법의 비율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한국사회복지학』 게재 논문들의 연구방법론 동향 I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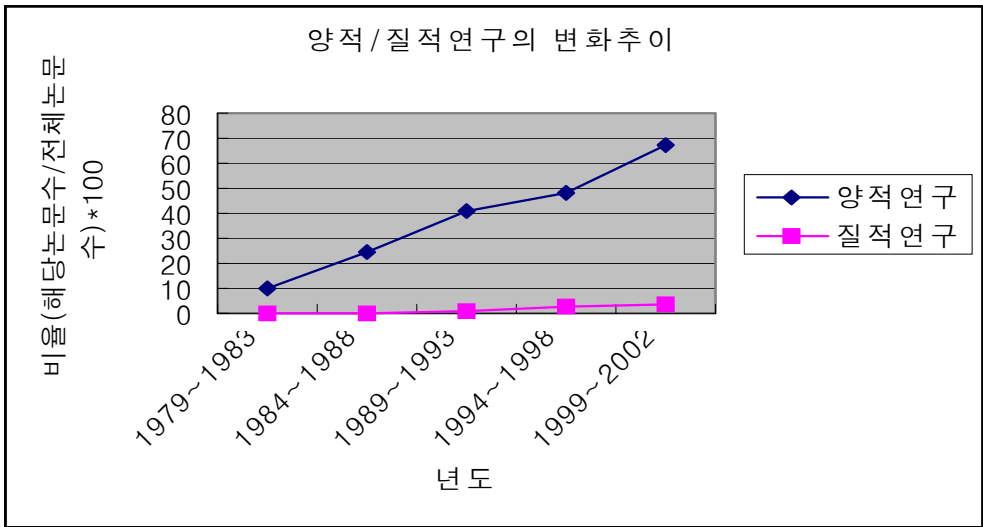
연도	경험적 연구				비경험적 연구	기타 연구	합계
	양적	질적	혼합	소계			
1979	1	0	0	1(9%)	10(90.90%)	0	11(100%)
1980	1	0	0	1(14.29%)	6(85.71%)	0	7(100%)
1981	0	0	0	0(0%)	9(100%)	0	9(100%)
1982	0	0	0	0(0%)	7(87.50%)	1(12.50%)	8(100%)
1983	2	0	0	2(33.33%)	4(66.67%)	0	6(100%)
1984	2	0	1	3(27.27%)	8(72.73%)	0	11(100%)
1985	1	0	0	1(12.50%)	7(87.50%)	0	8(100%)
1986	4	0	0	4(25.00%)	12(75.00%)	0	16(100%)
1987	3	0	0	3(30.00%)	7(70.00%)	0	10(100%)
1988	6	0	0	6(28.57%)	13(61.90%)	2(9.52%)	21(100%)
1989	7	0	0	7(41.18%)	10(58.82%)	0	17(100%)
1990	10	0	1	11(64.71%)	4(23.53%)	2(11.76%)	17(100%)
1991	6	1	0	7(43.75%)	9(56.25%)	0	16(100%)
1992	6	0	0	6(33.33%)	12(66.67%)	0	18(100%)
1993	5	0	0	5(31.25%)	11(68.75%)	0	16(100%)
1994	9	0	0	9(50.00%)	9(50.00%)	0	18(100%)
1995	10	0	1	11(40.00%)	14(56.00%)	0	25(100%)
1996	19	2	0	21(70.00%)	6(20.00%)	3(10.00%)	30(100%)
1997	23	1	0	24(48.00%)	23(46.00%)	3(6.00%)	50(100%)
1998	18	1	0	19(47.50%)	16(40.00%)	5(12.50%)	40(100%)
1999	30	1	0	31(72.09%)	12(27.91%)	0	43(100%)
2000	31	0	0	31(73.81%)	10(23.81%)	1(2.38%)	42(100%)
2001	30	2	1	33(63.46%)	17(32.69%)	2(3.85%)	52(100%)
2002	32	3	2	37(78.72%)	10(21.28%)	0	47(100%)
합계	256	11	6	273(50.74%)	246(45.72%)	19(3.53%)	538(100%)

한국적 사회복지의 지식 기반 확대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경험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양적·질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의 편중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 확연하게 인식되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 논문은 1996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1990년의 논문 한 편이 유일한 것일 정도로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선호가 강하였고, 1996년 이후에 와서야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홍경준(1998)이 지적한 원인과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에서의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강조와 선호 그리

고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편중 등이 매우 중요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표 2> 『한국사회복지학』 게재논문들의 연구방법론 동향 II - 5년 분기

연도	경험적 연구				비경험적 연구	기타 연구	합계
	양적	질적	혼합적	전체			
1979~1983	4(9.76%)	0	0	4(9.76%)	36(87.80%)	1(2.44%)	41(100%)
1984~1988	16(24.24%)	0	1(1.52%)	17(25.76%)	47(71.21%)	2(3.03%)	66(100%)
1989~1993	34(40.48%)	1(1.19%)	1(1.19%)	36(42.86%)	46(54.76%)	2(2.38%)	84(100%)
1994~1998	79(48.47%)	4(2.45%)	1(0.61%)	84(51.53%)	68(41.72%)	11(6.75%)	163(100%)
1999~2002	123(66.85%)	6(3.26%)	3(1.63%)	132(71.74%)	49(26.63%)	3(1.64%)	184(100%)
합계	256(47.58%)	11(2.04%)	6(1.16%)	273(50.74%)	246(45.72%)	19(3.53%)	538(100%)



<그림 1> 『한국사회복지학』 게재 논문들의 양적/ 질적 연구방법의 변화 추이

『한국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을 5년 단위로 묶어 재구성한 결과인 <표 2> 그리고 이 결과를 도식화한 <그림 1>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연구경향이 양적 연구방법에 편중되는 추세가 상당히 강하고 질적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연구방법의 적절한 적용과 관련하여 반성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시에 질적 연구방법을 사회복지학에 적용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현재 사회복지학과 같이 인간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균형적으로 지식을 확대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동시에 이에 따라 토착적 지식의 확산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사회복지학의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선행과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질적 연구방법들을 활용한 학술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학술 연구 논문에 관한 분석

다음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논문 중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 11편 중 복지국가 및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질적 연구의 방법을 적용한 1편은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들과는 비교에서의 제한점을 갖고 있어 제외하고 나머지 10편의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방법의 차원에서 그 특성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질적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현황을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과제 도출 및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표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어떠한 세부적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였는가, 어떠한 방법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어떠한 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있는가의 기준을 통해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먼저 세부적으로 어떠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이들 논문들은 질적 연구의 전형적인 방법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저자들의 용어로는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불리는 방법 즉 심층인터뷰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주류를 이루긴 하나, 이외에도 질적 연구의 주요 방법들인 현상학적 방법이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연구의 내용상 전형적인 현상학적인 방법이나 근거이론 방법의 엄격한 적용 측면에서는 제한점을 다소 갖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표본추출 방법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질적 연구방법의 전형적인 표집 방법인 유의적 표집이나 의도적 표집, 눈덩이 표집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일부의 경우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법이나 다단계 집락 표집법 등의 양적 연구에서 제시되는 표집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표본에 관한 논의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질적 연구의 지향이 일반화가 아니라 대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이어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 표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표본의 적확성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데(Gehart 외, 2001), 이 점에서 일부 연구논문들은 제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 및 자료수집 측면에서는 심층 면접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참여관찰, 기록지 우편발송, 포커스 그룹 등의 방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 분석 측면에서는 <표 3>에서 인식되는 바와 같이, 내용분석, 지속적 비교방법, 사례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서 이들 논문들은 각 연구 상황에 적합한 전통적인 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응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속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은 처음에는 귀납적인 접근으로 시작했다가 연역적으로 옮겨가고 또다시 귀납적 접근으로 되돌아가는 반복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인데(김두섭 역, 1999), 이러한 접근의 엄격한 활용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방법 활용 논문에 대한 분석²⁾

구분	방법론	표본추출	자료수집	자료분석	신뢰도/타당도 검증
A	내용분석	전문가에 의한 추천 : 10 가구	참여관찰 심층면접	내용분석	제시하지 않음
B	내용분석	단순무작위 표집법: 8명	면접	내용분석	모의사례전문가 검토의 뢰, 예비조사 여러 명의 내용분석가에 의한 분 석 결과 비교
C	현상학	임의지정: 치료자 1명, 내담자 3명	면접 상호과정 압기법	반복 비교 이야기 분석법	치료자 경력
D	근거이론	다단계 집락표집법 : 18가구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지와 개방형 면접지)	근거이론(약함)	전문가 평가
E	내용분석	의도적 표집: 50명	심층면접	내용분석 :근거이론모방	이웃, 상담원 사회복지 사에 의한 재평가
F	질적비교분석 (사례중심전략)	정책논문으로 다른 논문과는 구별됨			
G	내용분석	거래 기록 장부를 이용 한 무작위 선정: 20명	심층면접	사례분석 매트릭스	제시하지 않음
H	내용분석	임의접촉: 31명	매뉴얼을 담은 기 록지 우편 발송	내용분석	제시하지 않음
I	포커스 그룹	의도적 표집: 4명, 눈덩이 표집: 3명	심층 인터뷰 포커 스 그룹	질문하기 방법 지속적 비교방법	삼각측정
J	약한 근거이론	의도적 표집 (의뢰기법): 10명	심층 인터뷰	지속적 비교방법	삼각측정
K	내용분석	제시하지 않음	참여관찰 질은 기술	현상학적 접근법 근거이론	데이터 삼각대법 (data triangulation)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방법에서만이나 엄격한 수준에서의 적용을 요구받고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측면을 보면, 신뢰도나 타당도 검증에 있어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전문가가 평가라는 방법이 활용되어지나 2000년 들어 삼각측정(triangulation)의 방법이 활용되는 추세임이 관찰되어진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연구자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 보다 더 풍부하게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과 제시가 필요한데, 일부의 연구에서는 이런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최근에 삼각측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엄격한 적용에 대한 노력

2) <표 3>의 방법론, 표본추출, 자료수집, 자료분석, 신뢰도/타당도에서 제시된 내용은 각 연구자들이 논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특히, 방법론의 구분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Weber, 1990), 위의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된 질적 자료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내용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 모습이 관찰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분석 결과는 여전히 질적 연구방법의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적용을 통한 결과 도출의 부족이 사회복지학 질적 연구방법 적용에서의 현실임을 보여준다.

질적 연구는 그간 제한점으로 지적받아 온 과학적 엄격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신뢰성(trustworthiness)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란 공정하게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면서 동시에 연구대상의 경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유태균 역, 2001). 이를 Lincoln과 Guba(1985)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라고 하며,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반응성(reactivity), 연구자의 편견, 연구대상의 편견을 배제하려는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는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context)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적용성(transferability)의 개념을 통해 제시한다(Lincoln and Guba, 1985; Malterud, 2001). 나아가 질적 연구는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자는 최종 결과물에서 자신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그 해석에 도달하였는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제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자의 자기 반향적 사고를 통한 해석 논리의 추적과 해석 논리에 대한 객관화 과정은 해석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김두섭 역, 1999: 228-237). 이러한 기준들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총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학 분야의 질적 연구들은 아직까지 질적 연구에서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응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엄격한 적용과 이의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시사해 준다. 이는 현재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사회복지학 내에서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수준 높은 학습과 정확한 적용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즉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에 대한 사회복지 학계 내에서 깊은 성찰과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질적 · 양적 연구방법 비교 및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유형

다학문적 전통, 다양한 철학적 배경에 기반한 질적 연구방법을 단순하게 특징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질적 연구방법의 다차원성 때문에 질적 연구를 획일적인 철학이나 일단의 방법론적 원칙들로 범주 짓는 것이 질적 연구방법의 논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김두섭 역, 1999: 이기홍·최대용 역,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방법은 해석학적 전통의 범주에 해당하는 학파 그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접근 즉 현상학, 민속방법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후기 근대주의적 접근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제한점을 인식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고 질적 연구의 일반적 접근방법들과 이들의 기본적 특성을 탐색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특징적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질적·양적 연구방법의 비교 - 유사점과 차이점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본질과 가정을 가진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방법들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질적 혹은 양적 연구방법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방법이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가정과 연구목적이 다르므로 두 패러다임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주의적인 학자들은 실천적 혹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이 두 방법은 양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고(문성호, 1998),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에는 이 두 방법의 통합이나 혼합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은 차이점도 상당히 존재하나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측면 모두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먼저 이 두 방법론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이 두 방법론은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견과 결론을 도출해 내는 점, 즉 실제적인 증거에 입각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접근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둘째, 질적·양적 방법 모두 엄격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으며 수행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서 비체계화된 접근이라는 오해가 실려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실제에 있어 질적 연구방법 역시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연이나 임기응변식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질적 연구방법 역시 체계적 접근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맥락의 고려를 중시하며 융통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갖는 특성이 있다(김두섭 역, 1999:22). 셋째, 자료를 단순화(reductionistic)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양적 연구방법과 같이 질적 연구방법 또한 나름대로 자료를 일정 수준까지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은 모두 자료의 단순화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단지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자료를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될 수 있는 반면,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자료를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즉 기본적으로 이 두 방법 모두 자료의 단순화 과정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방법론의 차이에 주목했을 때, 우선 이 두 방법론은 학문적 전통에서의 차이에 따라 연구 접근방법 및 연구 목적에서의 차이를 갖는 경향성이 있다. 질적 연구는 해석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 역사학, 민속학 등의 학문전통에 기반하고,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 실증주의, 논리적 실증주의 등의 학문전통에 기반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렇게 다른 학문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두 방법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갖는다. 질적 연구방법은 귀납적, 주관적, 총체적 접근을 지향해 온 반면, 양적 연구방법은 연역적, 객관적, 경험적 접근을 지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법을 지향하는 두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서도 차이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는 이론 검증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질적 연구는 이론의 검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견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양적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검토되어 있는 상태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이론 검증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연구주제들에 초점을 두면서 이러한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이론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이 강하다(신경림 역, 1997).

두 번째의 차이는 자료수집 도구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양적 연구방법은 객관적인 도구,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나,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도구가 되는 질적 연구에서는 자기반향성(reflexivity) 즉 연구과정 내내 연구자가 스스로를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자기반향성을 근거이론학자들은 이론적 민감성으로 지칭하면서 연구자들의 이론적 민감성 정도에 따라 연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는 달리 양적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연구자가 아니라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것으로서 연구자가 이러한 자료수집 도구를 갖고 현상에 대해 접근하기 때문에 같은 현상에 대한 자료수집의 결과에서 차이가 적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료수집 도구의 차이는 양적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탐구의 오류인 '부정확한 관찰'과 관련하여 상호 융합되기 어려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하다(채선희, 1996; 윤여각, 2000).

세 번째로 표집방법과 표본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성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확률표집(probability sampling)방법을 사용하는 양적 연구방법과는 다르게,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이론의 심화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혹은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등의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한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양적 연구는 표집에서 대표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질적 연구는 연구 의도와의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이론적 표집에서 연구자는 연구문제나 이론적 입장과 분석틀, 실행할 분석 방법, 가장 중요하게는 도출해 내야 할 설명 등을 고려하면서 탐구할 집단이나 범주를 선택한다. 즉 이론적 표집은 연구자의 이론이나 설명을 도출해 내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징이나 범주들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표본의 구성을 통해 이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는 반면에, 양적 연구의 표집은 무작위 추출을 통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김두섭 역, 1999). 한편 표본의 규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가 클수록 작은 표준오차를 가져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작은 오차를 갖는다고 보는 양적 연구(Hamilton, 1990)와는 다르게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도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 무방하다고 본다(김두섭 역, 1999). 즉 연구자가 추구하는 연구문제나 이론, 그리고 이끌어내고자 하는 설명의 형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케 하는 정도의 규모이면 된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는 다르게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와 관련해서 Gehart 외(2001)는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검증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연구자는 필요한 사례 수를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고 분석과정을 통해 요구되는 표본의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을 위해 대표적 표집을 하는 양적연구의 표집과 현상에 대한 적합한 관찰을 위한 의도적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의 표집은 연구방법의 배경적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연구수행 및 결과보고와 관련된 엄격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절차 및 과정을 양적 연구에서만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일부 질적 연구자들은

창의성과 즉흥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양적 연구영역에서 제기되는 엄격함, 즉 무작위 표본추출, 일반화 가능성, 신뢰도와 타당도를 질적 연구영역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동시에 그러한 적용이 질적 연구의 본래적 연구 설계와 적합하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유태균 역, 2001). 그러나 질적 연구가 조금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조사방법이나 연구수행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주장들 역시 질적 연구 내에서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Byrne and Cnor, 2001; Malterud, 2001). 즉 질적 연구에서도 자신의 자료창출과 분석이 연구문제들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주의 깊고 정직하고 정확한 것이라는 점을 자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엄격함에 기초해서 분석결과를 제시할 때, 독자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한다(김두섭 역, 1999). 따라서 최근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삼각 측량(triangulation)기법을 많이 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방법을 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삼각 측량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엄격성을 강화를 위해 다중 관찰 전략, 다중 분석 형태, 다른 이론적 기원을 가진 자료의 분석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연구수행 및 결과보고와 관련된 엄격성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가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엄격성과 관련된 정형화된 틀을 갖지는 않으나, 최근에는 엄격성 논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면서 엄격성 기준의 강화가 점차 강조되는 경향성이 있다.

다섯째, 양적 연구를 평가하는 공통적 기준은 연구결과의 일반화(generalizability)이다. 즉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보다 큰 규모의 무작위 표본의 활용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일반화를 논의하나, 질적 연구는 일반화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적용성(transferability)의 범위 파악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즉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context)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적용성 범위의 파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다. 적용성은 다른 맥락들 중 어떤 맥락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적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현상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는 것(thick description)과 의도적 표집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적절한 연구질문과 관련된 표본의 선정을 통해 적용성에 관한 논의가 강화되어질 수 있음이 강조된다(Malterud, 2001; Byrne and Cnor, 2001). 정리하면, 일반화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bility)를 지향하는 반면, 질적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적용성(transferability)에 관심이 있다. 특히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관찰한 그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동시에 자신의 연구가 행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맥락에까지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파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는 개념의 내용을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에, 질적 연구에서는 현상을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 그리고 사고의 결과를 글로써 표현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근거이론에서 이론적 민감성으로 지칭되는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글쓰기 능력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탄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유태균 역, 2001). 따라서 최근에는 개념화하고 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문학자나 언어학자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요구되는 정도로 질적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기술과 사고의 결과를 글로 생생하게 나타내는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양적 연구에서는 계량화된 결과에 대한 해석 기술이 보다 많이 요구되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관찰된 그리고 공유된 내용을 생생하게 정리하고 나타내는 글쓰기 능력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2)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유형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학 및 문화인류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1920년대 경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현상의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죽음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Ground Theory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후 연구 방법의 다양성이 보다 넓게 개척되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질적 연구방법은 여성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간호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관심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갖는 질적 연구방법은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마디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Mason은 질적 연구방법이란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서, 연구형태에 따라 질적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두섭 역, 1999: 재인용).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정의에서 어려움은 있으나, 그 특징에 관해서는 논의들이 많다. Padgett(1999)은 질적 연구방법의 주된 관심사는 특정범주나 변수보다도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묘사를 통해서 연구대상의 복잡한 세계를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알리는 것에 있다는 주장을 통해 질적 연구의 특성을 제시한다. Rossman과 Rallis(1988)는 질적 연구방법은 자연스런 환경에서 관찰을 수행하는 특징, 그리고 관찰에서 상호작용적이고 인간적인 다중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해석하는 해석적 특징을 가짐을 제시한다. 질적 연구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질적 연구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에서 보다 융통적이며,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상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서 복잡성, 세부적인 사항 및 맥락에 대한 이해 즉, 본질적인 형태의 분석과 설명이 피상적인 유형이나 추세 혹은 상관관계의 묘사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짐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Maykut과 Morehouse(1994)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과 사회 현상을 탐색하고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질적 연구자는 ‘자활 대상자들이 이해하는 자활의 개념은 무엇인가’ ‘약물사용 청소년의 회복과정 경험은 어떠한가’ 등과 같은 탐색적이고 서술적인 질문에 대해 반응하고 조사하는데 관심을 둔다. 즉 이러한 질적 연구의 지향은 결과의 일반화가 아니라 연구를 위해 선택된 참여자의 경험과 그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은 의도적 표본(purposive sample)을 가짐을 통해 사회 현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양상이 자료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을 둔다. 즉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다 적합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본의 구축을 통해 관찰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

제, 질적 연구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환경, 즉 자연스런 환경에서 자료 수집을 한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는 맥락 안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자연스러운 환경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현상을 맥락 안에서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은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넷째, 질적 연구방법은 자료 수집에서 양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접근을 위해 질적 방법을 활용한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및 감정 등과 같이 쉽게 관찰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참여관찰, 심층면접, 집단면접, 관련 문서 수집, 비디오 촬영 등의 다양한 질적 자료수집의 방법을 사용한다. 다섯째,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형태, 즉 귀납적인 방향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성이 보다 강하다. 즉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마지막 단계의 결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정리 형태, 즉 귀납적 형태를 주로 갖는다. 이러한 형태를 갖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분석될 내용들이 연구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 경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결과의 보고에서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의도를 갖는데, 바로 이러한 의도의 충족을 위해 사례 접근형태의 접근을 하는 경향성이 많다. 풍부한 이야기를 통해 이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은 풍부한 진술(thick description)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의 공감을 확장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Creswell, 1998).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상학(phenomenology)은 여러 개의 학과가 존재하는 철학의 영역인 동시에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상생활의 경험(체험)을 실제적, 함축적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상의 본래의 모습과 의미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방법은 이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거이론과 달리 연구대상인 현상에 대해 정확히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의 체험과 의미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면서 본질 직관의 방법을 강조한다면, 이는 질적 연구에 대한 많은 접근 방법들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현상을 체험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바로 그 사람 즉 연구 대상자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현상을 바라보는 내부자(emic)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 이러한 관점은 현상학뿐만 아니라 많은 질적 연구방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밖에 현상학적 접근방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비중을 두는 것에는 지향성(intentionality)이 있다. 지향성은 인간의 삶은 항상 누군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고 이 지향된 관계 안에서 상호주관성이 있음을 중시한다. 즉 지향성은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개념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방법은 같은 주체라도 연구자에 따라 그 깊이와 질이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와 그들의 체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상호 주관성이 연구내용과 깊이를 결정한다고 본다(신경림 외역, 2001).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문화인류학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정 집단의 문화적인 양식에 중점을 두고 이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즉 문화기술지 방법은 최근 고전적 혹은 전체적(holistic) 문화기술지, 특징적이고 초점적(focused) 문화기술지, 단면적(cross-sectional) 문화기술지,

민족사적(ethno-historical) 문화기술지로 구분되기도 하는데(Boyle, 1994: 신경림 역, 1997), 기본적으로 문화기술지 방법은 집단의 문화와 가치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를 보다 생생하고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문화기술지는 우선적으로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참여관찰과 현장 기록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집단의 문화, 가치, 신념, 실천 등에 대한 서술적 질문을 통해 그 집단의 문화 및 그 문화를 구성하는 참여자의 행동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 자료의 도출을 추구한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초한 연구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라는 'grounded'라는 용어에 많은 비중을 두는 접근 방식으로 '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즉, 근거이론 방법은 기존의 이해의 틀이나 다른 선행연구에 근거하지 않고, 순수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 후 자료에 근거한 이해를 생성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와 설명에 기초하여 예측까지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근거이론 방법은 이론의 생성을 강조한다(Creswell, 1998). 이 외에도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으로부터 비롯된 민속방법론, 기호학으로부터 비롯된 담론분석, 인류학 등으로부터 비롯된 참여관찰법, 질적 인성학 등이 질적 연구의 유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표 4>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과 유형

연구 유형	연구질문 유형	패러다임	자료수집 및 방법	기타 자료
현상학	의미론적 질문 - 경험의 본질을 이끌어 내는	철학(현상학)	대화 녹음 개인경험의 일화들	현상학적 문헌 철학적 반성, 시, 그림
문화기술지	서술적 질문 - 집단의 문화, 가치, 신념, 실무	인류학 (문화)	비구조적 인터뷰 참여 관찰법 현장 기술	문서, 기록, 사진 즉보, 사회 조직표
근거이론	'과정' 질문 - 여러 차례의 경험 또는 변화; 단계와 속도를 가짐	사회학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인터뷰	참여관찰법, 메모, 일기
담론분석	대화와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	기호학	대화 (녹음, 비디오, 녹화)	관찰, 현장기술
참여관찰법 질적 인성학	행동적 질문 - 거시, 미시	인류학 동물학	관찰: 현장기술	면담, 사진, 비디오 녹화, 노트 기술

인용: Morse, J. M,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 224.

정리하면, 개체서술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방법은 객관성과 보편성에 기반한 설명보다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의 종류는 아래의 <표 4>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실로 매우 다양하다.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발현된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중에서 연구자가 각자의 연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구자는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 연구 환경 및 연구대상자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양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신경립, 1997).

5. ‘사회복지학’과 ‘질적 연구방법’의 적합성(Fitness)에 관한 논의

다음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실천과 질적 연구방법의 적합성을 ‘Why’와 ‘How’의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즉 사회복지실천의 연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방법은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질적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이해에 제한점을 갖는 현상을 사회복지실천과정은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토착적 지식 체계를 구성하며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식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요청된다는 것에 주목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양적 연구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현상 본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

사회복지실천은 과학임과 동시에 예술로서 일컬어진다. 과학으로서의 사회복지와 예술로서 사실천의 특성은 사회복지학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이분화된 요소임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어렵고도 매력적인 학문으로 만드는 실체이기도 하다. 양적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을 통한 보다 객관화된 지식 산출, 예컨대 사회복지학의 과학적 지식 기반 축적과 확대에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특히 ‘수(number)’로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양적 방법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지식의 확보가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의 보편적 지식체계가 우리나라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등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지식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양적 연구의 지나친 편중은 한편으로는 현상의 본질보다는 일반화된 표피적 현상에 대한 이해에 보다 많이 집중하게 함으로써 맥락과 개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실천의 특성과 다소 거리를 갖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일부학자들은 ‘양적 연구방법’이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핵심적 이슈들보다는 주변적인 이슈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데 일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제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통계적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여 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부차적인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되지만 개념화나 조작화를 통한 측정이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인간의 역동성 또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측면 등 보다 본질적 주제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할 뿐 아니라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연구와 사회복지실천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공허한 연구에 머무르게 할 위험성을 지니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홍경준, 2002; 문성호, 1997).

지금까지 양적 연구방법은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지식 검증과 지식 축적의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상의 본질과 경험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요청되는 경우, 양적 연구방법은 제한적 도구일 수밖에 없고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제한성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의 효용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국사회복지연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지점에서 Padgett(1999)의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식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본다. Padgett(1999)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즉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개입에 관해 인과적 측면이 아닌 그 블랙박스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양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 연구와 적극적 행동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경우에 질적 연구는 매우 적절한 선택임을 강조한다. Padgett(1999)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활용되어지는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같은 실천 학문에서 발생하는 3가지 상황, 즉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 조작화나 측정이 어려워 양적 연구방법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민감한 주제들을 갖는 상황,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탐색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적절하고 절실한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과학과 예술로서 독특성을 갖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설명의 방식을 통한 학문적 토대의 확대와 더불어 이해의 방식을 통한 내용적 심화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특히 다차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실천의 폭과 깊이는 넓히고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의 보다 적극적인 적용은 사회복지실천의 속성과 맥락을 고려할 때 타당도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고 가치의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본다.

(2) 한국 사회복지학의 토착화된 지식체계 구성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기반이 되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학문으로서의 구성을 갖추은 지 약

50년이 지난 상황이다. 종합과학성과 독립학문성, 이론성과 실천성, 보편성과 토착성의 측면에서 논의 되어질 수 있는 한국 사회복지학(이혜경, 1995)에 있어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는 지식체계의 보편적 적용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토착적 지식 기반을 마련하는 것, 즉 이 둘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했던 이론들의 적합성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한 한국 사회복지학의 특수성을 논의하면서 이를 위한 실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노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성이·김상균, 1994).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은 어떻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복지학의 지식체계를 구축해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길잡이 기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복지학은 한국 사회복지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학문적 적절성 즉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학문적 체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나름의 논리와 언어, 방법론을 통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현장 중심으로 담아내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김정근·김영기, 1996: 13-24).

신경립(1997)은 질적 연구가 실제 상황, 즉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맞는 개념과 이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개발된 이론은 현 상황에 대한 이론화 측면에서 매우 높은 타당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질적 연구방법이 한국의 토착화된 지식체계 구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는 사회복지학에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길잡이로 기능해야 하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과 토착적 지식의 확보를 요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적 연구방법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양적 연구방법과 함께 핵심적인 축을 구성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에 응용학문인 간호학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활발히 적용하여 한국 간호학의 토착적 지식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그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복지학에서도 주목할만한 현상이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은 세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에서 활용되는 가정과 기술이 질적 연구방법에서 적용되는 가정 및 방법들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타학문에 비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울 수 있고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질적 연구방법의 큰 강점이자 주요한 특성의 하나인 ‘humanizing effect’는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에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여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내적 체계를 강화하고 그 효과성을 동시에 증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기반의 확보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방법의 논리를 활용하여 우리의 클라이언트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적절한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정립과 강화(theory-building)를 이룩해 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함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실천과 질적 연구방법의 유사성

사회복지실천과 질적 연구방법의 기본 관점, 가정, 기술 측면의 유사성은 이 둘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 둘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적합성에 관한 논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① 내부자(emic) 관점 대 감정이입

질적 연구방법과 사회복지실천은 대상에 대해서 접근하는 관점 측면에서 매우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과 활용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우선, 질적 연구방법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연구 중인 환경 속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부자의 관점으로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서 내부자 관점을 취한다는 의미는 연구자가 실험대상인 현상에 대해 실험적인 통제를 가하거나 ‘관계없는’ 변수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의 모든 측면이 검토되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른 개입 변수들도 연구하는 현상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해서 전제된 가정과 성질들이 검토되고 이론적 설명도 그들의 발생하는 맥락 속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되는 것을 추구한다(신경림, 1997). 한편, 양적 연구는 etic(외부자) 관점을 취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찾아 인과 관계를 설명하고 이에 기초해서 현상에 관해 객관화될 수 있는 예측을 만들어 내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의 주요 초점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입변수들을 통제하면서 실험에 포함된 핵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양적 연구와 다르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실험대상인 현상에 대해 외부자 관점에서 거리를 갖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상의 배경 측면들을 이해하면서 외부자 관점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독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한 내부자 관점에서의 이해를 추구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해서 현상의 저변에 있는 가정들과 특성들을 검토하고, 그 현상에 대한 설명도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 속에서 논리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추구한다(신경림 역, 1997: 31; 유태균 역, 1999).

질적 연구의 이러한 내부자 관점과 맥락 안에서의 현상 이해는 사회복지실천에서 매우 익숙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은 현장에서의 접근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정이입의 중요성과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클라이언트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요소는 바로 질적 연구방법의 기본 요소와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실천은 타학문 영역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이 매우 잘 갖추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② 관계 지향 대 라포 성립의 중시

Gilgun(1994)이 강조하듯이,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실천 특히 임상적 실천 방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 유사성의 내용 또한 질적 연구방법과 사회복지실천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 질적 연구의 일차적인 자료수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층면접, 관찰, 기록참조 등은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특히 질적 연구는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서 심층면접 및 연구대상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을 기본으로 여기는 사회복지실천과 상당히 유사하다. 질적 연구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 심층면접의 질과 깊이를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는 이미 기본적 토대로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전문가가 잘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방법임을 인지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과 질적 연구의 목적은 차이를 갖는다. 즉, 사회복지실천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반면,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에서 요구하는 긍정적 관계 형성의 가정이나 기술 등은 라포 형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훈련 과정이나 개입기법과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사회복지사가 질적 연구방법의 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방법의 구성요인과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인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성 측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응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③ 이론적 민감성 대 실천이념(practice ideology)

수집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Glaser, 1978)을 의미하는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은 질적 연구에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중요한 힘을 갖는다. 연구자의 통찰력을 요구하는 이론적 민감성이야말로 질적 연구를 어렵게 하면서도 질적 연구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만드는 역동적 요소이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이론적 민감성은 깊이 있는 연구결과 산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질적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민감성을 갖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탁월한 통찰력, 섬세함,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 등의 다양한 요건과 더불어 현장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식과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질적 연구는 이론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모두에 기반한 현장에 대한 감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한편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실천 기술의 불확정성 때문에 실천이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천 지혜(practice wisdom) 및 경험 이 모든 것의 견비에 기반한 실천이념(practice ideology)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Hasenfeld, 1983).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개입활동에 대해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 토대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이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스스로의 경험과 자신의 성숙한 이해 및 실천 지혜 등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대상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즉 현장에 기반해서 쉽게 획득될 수 없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질적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이론적 민감성의 요소를 이미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의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질적 연구방법의 학습과 적용은 쉽게 발견해 내기 어려운 살아 있는 현장 지식을 만들어 내고 현장 이론을 개발하는데 무엇보다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질적 연구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이론적 민감성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축적되어지는 실천 지혜로부터 상당히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질적 연구방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결합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에 대한 지식기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Humanizing Effect' -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대한 통찰력 증진에 기여

질적 연구는 연구 과정과 결과물 모두에서 사회복지실천에 직·간접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질적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얻는 효과 즉 반향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humanizing effect'는 사회복지실천 전과정에 대한 통찰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에 매우 적합하게 전개될 수 있다(Malterud, 2001; Whittemore 외, 2001). 'humanizing effect'와 같은 질적 연구의 요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실천은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경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 전과정에 대한 통찰력 증진에 매우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적 연구의 과정 자체는 연구의 전과정에서 연구자로 하여금 부단한 반성적 사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질적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부단한 사고는 두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적 맥락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를 정리하는 맥락에서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맥락에서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연구문제에 대한 제시를 통해 이것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깊이 사고해야 한다. 즉 연구문제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가 또는 연구문제가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자에 의해 자료를 조작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Geertz(1973)는 질적 연구의 초점은 논리 정연한 기술을 수행해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상을 복잡한 그대로 그러나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기술해 내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Denzin 외(2000)는 연구과정에서 발견되는 반증자료들을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그것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맥락에서도 반성적 사고는 필수적이다. 연구자는 내부자들의 관점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점에 대해 자신의 전문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학문공동체의 이론체계에 기반해서 혹은 이와 관련된 지식체계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현상과 관련 학문의 이론체계 연결, 검증, 새로운 발견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정리 과정에서 자신이 밝혀낸 사실이 기존의 이론체계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 해석은 기존의 이론체계에 비추어 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해석의 적합성은 반드시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료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사고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지만, 언제나 그 뿌리는 자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이

론체계가 연구자가 밝혀낸 사실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연구자의 새로운 해석이 강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이론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부각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기존의 이론체계와 새로운 해석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연구자의 반성적 사고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강조된다(윤여각, 2000: 144 - 145).

이러한 질적 연구의 반성적 사고를 통한 'humanizing effect'는 반성적 사고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대한 통찰력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 역시 전과정을 통하여 부단한 반성적 사고를 수행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실천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해서 평가 혹은 지도감독 등의 기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이해 및 보다 적절한 개입 활동의 전개를 추구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질적 연구방법의 반성적 사고를 통한 'humanizing effect'는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반성적 사고의 차원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사회복지실천에 보다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반성적 사고와 연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반성적 사고는 실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를 요하는 사회복지실천과 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반성적 사고의 방식과 틀의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맥락, 클라이언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면서 사회복지실천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한국 사회복지학의 실천이론 개발에의 기여

한국 사회복지학의 이론적 기반의 확보라는 과제를 갖는 우리에게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우리나라 클라이언트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실천이론의 정립과 강화(theory-building)를 이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주요한 초점을 두는 학문이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 지향적인 학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성, 즉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사회복지학은 가치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 이론 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식 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재점검과 강화 및 증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학은 보편적 지식뿐 아니라 한국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에 기반해서 발전해야 한다. 즉 한국 사회복지학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 개발과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클라이언트 특성의 다양화와 복잡화,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 가치와 이념 변화 등의 사회변화는 서구에서 개발되거나 적용되고 있는 이론 및 보편적 이론의 적용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체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적 혹은 보완적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실제와 현상 및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해석을 통해 현장의 문제에 대한 생생하고 적합한 지식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질적 연구방법(유태균 역, 1999)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의 모습을 매우 잘 반

영하는 토착적 지식과 이론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일 수 있다. 특히, 근거이론 등의 연구 방법의 적용은 토착적 사회복지실천 지식과 이론의 개발이라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과제를 실현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은 이러한 기여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연구자와 사회복지실천가 사이의 욕구 격차를 좁히는데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adgett, 1999).

6. 결론 : 'Many Ways of Knowing'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론 경향을 분석하고, 질적 연구방법의 사회복지학에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모든 논문을 즉 창간호인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술논문을 분석틀에 따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분류과정에서 분류의 오류나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은 양적 연구방법에의 과도한 편향 상태가 매우 극심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의 한계가 지적되기 시작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유형을 정리해 보면서 ‘사회복지실천과 질적 연구방법은 어떠한 적합성을 갖는가’ 특히 사회복지학에서 왜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유용성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과 논의 전개를 하면서 본 논문의 저자는 ‘사회과학연구 방법의 다양성과 사회복지학을 위한 연구방법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현대 학문 세계에서 역시 ‘앎’에 대한 연구방법의 다원주의가 지향되고 있다.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 중 무엇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이제 하나의 길만을 고집하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앎’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길들을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에 의해 점차 논쟁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학의 지식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의 본질과 실재(reality)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를 위한 타당한 방법들을 엄격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우리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의 확보를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갖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학문이 제기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타당한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즉 그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 그 학문 세계에 속한 연구자는 자기 학문 영역의 연구 문제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가장 타당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법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 사회복지학계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발전을 위한 해결방향을 논의가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질적 연

구방법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유형 및 적절성에 대한 담론을 제한적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전개시켜 보았다.

사회과학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설명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이해의 접근방식'이 사회과학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앎'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어야만 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타당하게 인정되고 있다(이기홍·최대용 역 2000). 즉 사회적 실재에 대해서 'Many Ways of Knowing'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에 대한 일방적인 치우침은 경계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사회과학 접근방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확산 속에서 우리는 사회복지학에서 탐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이제는 어느 하나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얽매임이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에서 지속된다면 사회복지관련 현상에 대해서는 제한된 이해와 설명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복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문제에 따른 적절한 접근방법의 선택과 함께 양적 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학이 한국에 소개된 지 반세기를 지나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지식의 검증뿐 아니라 우리의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토착화된 지식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질적 연구방법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 타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접근 도구라고 본다. 이제는 보편적인 지식의 검증 노력과 함께 적절한 연구방법의 활용에 기초해서 우리 현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하는 지식의 산출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학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심화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비록 다양한 사회과학 접근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초점을 두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의 제한된 연구방법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제한성을 가지나, 이러한 논의가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방법들의 적극적이고 유용한 활용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서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방법론들의 활용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복지학의 지식체계를 보다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결과물들이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두섭 역. 1999. 『질적연구방법론』. Jennifer M. *Qualitative Researching*. 서울: 나남출판.
 김성이·김상균. 1994.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김정근·김영기. 1996.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3-24.
 김연옥.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경험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문성호. 1997. “사회사업실천의 연구방법에 관한 논쟁: 통합적 접근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33: 144-161.
- _____. 1998. “가족치료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57-177.
- 신경림. 1996. “질적 연구평가 기준”. 『대한간호학회지』 26(2): 497-506.
- 신경림 역. 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Janice M. M and Peggy A. F.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경림·공병혜 역. 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윤여각. 2000. “교육 연구에서 질적 접근의 논리와 방법”. 『교육학연구』 38(3): 133-158.
- 오정수. 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비판사회학회 2002년 학술대회 자료집. pp. 15-23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Padgett, D. 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rs and Rewards*. 서울: 나남출판.
- 이기홍·최대용 역. 2000. 『사회이론과 방법론에 다가가기』. Blaikie, N. *Approaches to Social Enquiry*.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혜경.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1995년 추계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63-74.
- 조옥라. 1995. “가족연구에 있어서의 질적 연구방법”. 『간호학탐구』 4(2): 216-225.
- 채선희. 1996.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재정립을 위한 개념적 접근: 질적, 양적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4(5): 281-297.
- 한국사회복지학회. 1979~2002. 『한국사회복지학』.
- 홍경준.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비판사회학회 2002년 학술대회 자료집. pp. 1-14
- 홍경준. 1998.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1-53.
- Barbour, R. S. 2000. “The role of qualitative research in broadening the evidence base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valuation in Clinical Practice* 6(2): 155-163.
- Boyle, J. 1994. Style of *ethnography*. In J. M. Morse(Ed.),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159-185). Thousand Oaks, CA: Sage.
- Byrne, M. M., and R. M. Cnor. 2001. “Evaluating the findings of qualitative research.” *Aorn Journal* 7(3): 703-706.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
- Denzin, N. K., and Y. S. Lincoln.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Etzy, D. 2001. “Are qualitative methods misunderstoo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5(4): 294-297.
- Faulkner, R. A., K. Klock, and J. E. Gale. 2002. “Qualitative research in family therapy: publication trends from 1980 to 1999.”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8(1): 69-74.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Y: Basic Books.
- Gehart, D. R., D. A. Ratliff, and R. R. Lyle. 2001. “Qualitative research in family therapy: A substantive and methodological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2): 261-274.

- Gilgun, J. F. 1994. Hand into glove: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and social work practice research, in Sherman E. & Reid, W. J.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laser, B.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amilton, Lawrence C. 1990. *Modern Data Analysis*.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Pacific Grove, California.
- Harrison, J., L. MacGibbon, and M. Morton. 2001. "Regimes of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research: The rigors of reciprocity." *Qualitative Inquiry* 7(3): 323-345.
- Hasenfeld, Y. 1983. *Human Service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incoln, Y. S., and E. A.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lterud, K. 2001. "Qualitative research: standards, challenges, and guidelines." *The Lancet* 358: 483-488.
- Marshall, C., and G. B. Rossman. 199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Maykut, P., and Morehouse, R. 1994. *Beginning Qualitative Research*. Palmer Press.
- Morse, J. M.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Padgett, D. K. 1999. "The research-practice debate in a qualitative research context." *Social Work* 44(3): 280-282.
- Peshkin, A. 2001. "Angles of vision: enhancing perception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7(2): 238-253.
- Rubin, A. 2000. "Standards for rigor in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0(2): 173-178.
- Riessman, C. K. 1994. *Qualitative Studies in Social Work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 Rossman, G. B., and S. F. Rallis. 1988. *Learning in the Field: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Sherman E., and W. J. Reid. 1994.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Whittemore, R., S. K. Chase. and C. L. Mandle. 2001.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1(4): 522-537.
- Wolcott, H. F. 2002. "Writing up qualitative research bette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1): 91-103.

Research Methods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Analysis of the Trend and Discussion for Promoting Appl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Kang, Chul Hee
(Ewha Womans University)

Kim, Mi Ok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methods in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and discuss utiliti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broadening and deepening social welfare knowledge body in Korea. First, this paper examines research methods of 538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from the volume one in 1979 to the volume 51 in 2002. It has the following results: (1) non-empirical research articles were dominant in the 1980s; (2) empirical research articles have been dominant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and (3) research articles utilizing qualitative methods have appeared rarely since the end of the 1990s.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phenomenology, grounded theory, ethno-graphic approach, narrative inquiry etc.)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rd, this paper discusses (1) fitness between practice in social welfare disciplin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2) utilitie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broadening and deepening knowledge body of Korean social welfare. In discussing the fitness, this paper focuses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ts with the needs of social welfare discipline regarding broadening and deepening our understandings about social phenomena related to practice, and (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ts the needs of social welfare discipline regarding developing endogenous knowledge. In discussing the utilities, this paper focuses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n be more properly utilized for social welfare research because there are coincidences in basic assumptions and perspectives of bo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social welfare practice. Fi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at 'many ways of knowing' exist in social scienc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more sincerely in the arena of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in order to more solidly develop the knowledge body of social welfare and practice in Korea.

Key word: social welfar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접수일 2003. 7. 7 게재확정일 2003. 10. 15]